전법 일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노을빛을 닮은 고운 잎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서서히 물들어 간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나무가 품어 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나무는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거센 비바람을 견디며 생명을 키워 낸다. 그 과정에서 잎이 마르고 가지가 꺾이는 아픔도 겪었지만, 나무는 언제나 한 계절을 온전히 살아 낸다. 나무와 같이 고난을 이겨 낸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면서도 솜털처럼 부드러운 깊이를 지니게 된다.

단풍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싶은 마음이 진동해 시각장애인 불자들과 직업재활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으로 향했다. 낙산사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에 실린 파도 소리와 고운 잎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파도 소리와 자연의 말 없는 울림은 존재 그대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법문처럼 가슴 깊이 번져 왔다.

곳곳에 걸린 노란색의 리본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우리를 부르는 듯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리본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부모님의 만수무강과 자녀들의 건강, 가족의 행복 발원이나 연인의 사랑의 글귀들이었다.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간절함을 느끼게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봉사자들이 리본에 적힌 발원을 읽자 자신의 마음과 똑같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우리도 마음속 발원을 적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발원을 불러 주면 봉사자가 대신 적어 함께 매달며 합장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같이 성불합시다"라고 외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가족은 변함없는 힘이 돼 준다. 서로 다르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다. 노란 리본에 적은 발원은 모두에게 감사와 화해,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됐다. 우리는 발원 리본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 중요함을 느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나는 처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장애란 이유로 세상과 멀어져 외로움을 스스로 짊어진 채 살아간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숨겨진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이웃을 돌보는 멋진 불자의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낙산사 성지순례는 단풍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겼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도반임을 외치며 더 깊은 자비와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연기법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 주는 순간들이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㉒ 단제 선사 황벽

깨달음에 국한되지 않은 불교

사람의 난자는 인체에서 가장 큰 세포로, 일반적으로 직경이 0.2㎜ 정도다. 난자의 무게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150ng 정도로 추정된다. 환산하면 0.00000015g이다.

이처럼 난자는 미세한 무게를 가지며, 일반 저울로는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값이다.

사람의 수정란은 난자와 거의 동일한 크기다. 수정이 이뤄진 후 세포 분열(난할)이 반복돼도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초기 난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분만기에 신생아는 대략 3.5kg, 50㎝에 이르게 된다. 태중에서 0.2㎜의 수정란으로 시작해 분만기에 50㎝에 도달한다. 임신 기간인 280일 동안 무려 2500배에 이르는 폭풍 성장이다. 신생아를 성인의 신장 170㎝와 비교하면 이 비율은 3.4배 정도일 뿐이다.

체중 변화의 비율은 어떠한가?

0.00000015g의 수정란이 3.5kg의 신생아로 태어나는 것은 230억 배로 증가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운다. 그러나 신생아가 65kg 정도의 성인이 되는 것은 고작 18.6배 정도로 증가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비율은 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태중에서 거의 완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치에 의한 변화로 인간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등 불교 문헌서
인간 탄생도 주의 깊게 다뤄
현대의학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

그러나 태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때 상상 너머의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일찌감치 파악했기에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불교 문헌에서는 인간의 탄생을 상당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 대륙의 일반적 견해인 윤회의 문제가 개입되기에 더욱 그러했다.

대승의 문헌인 〈제경요집〉, 〈법원주림〉 등은 모태 내에서 태아의 성장 등에 관한 서술을 집중해 조명하고 있다. 갈라람위(羯羅藍位), 알부담위(遏部曇位), 폐시위(閉尸位) 등 태내 8위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서술을 대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란으로 맺어져 그 형태가 엉기어 묽게 된 것은 갈라람위다. 안팎이 조금 굳어진 형태는 알부담위다. 살이 생성되어 매우 부드럽고 연한 모습은 폐시위다. 단단해지고 두터워져서 점차 만질 만한 것은 건남위(鍵南位)다. 살덩어리가 자꾸만 자라나서 팔다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발라사거위(鉢羅賒佉位)다. 머리털과 손발톱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발모조위(髮毛爪位)다. 눈 등의 감각기관이 나타나는 것은 근위(根位)라 한다. 그 형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형위(形位)다.

상응부 문헌의 주석서인 〈아따카따(Aṭṭakathā)〉는 발생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 설명으로 해설해 주고 있다. 즉 갈라람은 세 가닥의 털로 만든 실오라기 끝에 놓인 기름방울만 한 크기의 미세한 물질이라고 '깔랄라'를 설명한다.

또 임신 35일에 이르러 돌출부가 나타나며 이로부터 손발과 머리의 다섯 돌기들이 생겨나는 것은 발라사거(pasākhā)라고 설명한다.

이는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산부인과의 분석에 견주어도 어떠한 손색이 없는 수준의 설명이다. 불교의 교학적 수준은 깨달음의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 가을에 다시금 불교 경론을 뒤적여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청년 전법·포교에 사각지대 없어야

최근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발표한 올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최우수작품상과 각본상에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가 선정됐다.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수능 고사장이 아닌 중소기업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보내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장실습생으로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냉혹하기만 하고 그 모진 세파를 맞아야 하는 열아홉 청춘들은 자못 안쓰럽기만 하다.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치르는 수능조차도 이들은 TV뉴스에 나오는 기사거리 정도다.

한국사회에서 '수험생'은 특별한 존재다. 수능 수험생을 위한 각종 선물 이벤트와 할인혜택들이 주어진다. 수능을 잘 치르라는 의미로 불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계도 법회와 미사, 예배를 연다.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이 기다리기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첫발을 내딛기에 모두가 '대학 진학'을 위해 매진한다.

하지만 모든 19살이 수험생은 아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비진학 청년'도 있고 여러 사유로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학생 신분 부재로 인해 대학 입시 등에서 차별을 겪는다.

모든 청년의 기본값은 '대졸자'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포교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어디에서도 같은 크기와 같은 빛을 보이듯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똑같이 접할 수 있도록 불연(佛緣)의 끈을 제공해야 하는 게 불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불교계의 청년 전법·포교 영역도 '대학 진학'과 '대졸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진학 청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교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들을 위한 포교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 진학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 시즌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뛰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또한 조금 일찍 세상과 마주한 세상의 모든 열아홉들에게도 '힘내라. 넌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을 전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